

포천사회 知識人 ⑤

대진대학교 박 정 근 교수

수준 높은 地域文化 창출 도움돼야

“대진대 교수들의 역량을 포천발전과 연결할 줄 알아야”

“포천 선조들의 훌륭한 문화적 풍토에 비해 현대의 문화는 천박한 자본주의, 내용 없이 겉대기 밖에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현재 포천의 주요이슈는 경제발전이다. 지역개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를 함양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뺨 문제로 크게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는 어떤 삶을 영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대진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박정근(51·사진·대학원장)교수는 1992년 대진대학교 개교와 함께 부임하여 오늘날 대진대학교가 괄목상대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미드라마와 셰익스피어 등의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박 교수는 전북 부안 고성초, 익산 남성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교육대학교를 나와 교사로 교직에 입문하여 교사로 근무하다가 서경대학교 영문학과에 편입하여 졸업하고 서경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석사학위를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 교수는 이해조문학회가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제공하는 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포천출신 이해조 라는 작가에 대해 일어서 친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발표한 친일파 명단에 올라와 있는지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떠도는 사실에 대해 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의 훌륭한 인물에 대해 평가절하 하려는 포천시민의 모습은 문하다고 지적한다.

박 교수는 “역사적·문화적 인물이 약간 상처가 있다고 모두 자르면 곤란하다”며 “40여편의 작품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낸 동농 이해조 연구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인 흑백논리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동농 이해조의 방대한 작품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운동적 가치를 연구하고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 포천문인협회 부회장, 마홀남성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 교수는 지역 사회 주민들과 더불어 포천의 문화를 가꾸어 나가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한다. 아울러



환경대학, 한타넷 강좌 등을 대진대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개설하여 시민들과 호흡해 왔다.

또 문예대학을 개설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며 보다 수준 높은 지역문화 창출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함으로써 순수한 문화예술운동이 변질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문화예술 단체장들이 역량을 갖춘 새로운 사람들을 적극 영입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기득권에 색깔을 칠해 자기보호막을 치기 보다는 대진대 교수들의 역량을 포천발전과 연결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정치인은 물론이고 문화예술계, 경제계 등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이다. 토착세력의 자기극복이 중요하다. 폐쇄성을 버려야 한다. 개방시켜야 한다. 기득권을 영구화 하기 보다는 공유하고 서로 바꿔가며 내가 양보한다는 자기희생이 요구된다.

박 교수는 대진대학교 총장배 영어스피치 경연대회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구사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최했다. 아울러 경기북부지역의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어연수도 처음으로 실시하여 영어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박 교수는 또 서울에서 셰익스피어학회와

국립극장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셰익스피어 연극제에 배우로 여러 작품에 참여했으며 연출, 극작가로도 참여한 바 있다.

포천에서 이해조문학회의 비전에 대해 박 교수는 국문학임에도 불구하고 문인(교수)으로서 참여하고 컨텐츠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여 행정하는 사람들이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즐기면서 채워자는 자세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해조문학회가 포천사회가 대표하는 문예진 소설가를 발굴해 천박한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따라가는데 아니라 문화적 컨텐츠를 내세울 수 있는 인물로 만든다면 군사, 변방 문화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고 한다.

동농 이해조는 작품을 통해 일제초기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고 극복했으며 고민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문화적·사회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대담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해조기념사업회를 구성하는 것은 행정적·정치적 역량이고 연극사업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며 이것은 지식인들의 몫이다.

그러나 예산확보 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움도 좋겠지만 관이 주체가 되면 안된다. 포천신문이 주체가 되어 순수하게 이해조문학회를 제정하고 노력하다보면 연극사업 등 다양한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교수는 대진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대진대학교 대학원장, 한국 셰익스피어학회 공연부회장, 시인(창조문학 추천완료)으로 활동중이며 주 연구 분야는 영미문학, 세부 연구분야는 현대영미희곡과 셰익스피어, 소속학회는 셰익스피어학회, 현대영미희곡학회, 고전르네상스 학회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1985년 서경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Affirmative sense in Eugene O'neil's Tragedies:through Dionysiac Universal Harmony”와 1991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ugene O'neil 비극에 나타난 분열과 통합”등 다수가 있다.

주요 저서로는 ▶실무영어회화(도서출판 동인)▶연극을 어떻게 볼 것인가(도서출판 동인)▶번역 키호테 신부(그림 그린) 도서출판 하늘땅▶박정근 시집 ‘물의 노래’(창조문학회,2005)등이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문화 향유,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에 큰 노력 기울여야



신임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장 최종규

“임기 동안 노인복지관 建立 위해 최선”

지난 24일 실시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장 선거에서 최종규(76세) 포천향교 前 전교가 이동해 現 지회장과 접전을 벌인 끝에 지회장으로 선출됐다.

조율을 이루지 못하고 실시된 이날 선거는 포천시지회 임원과 각 경로당 회장들이 유권자로 참석한 가운데 총 유권자 286명 가운데 2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표결과 최종규 前전교가 148표, 이동해 現지회장이 120표, 기권 18표로 나타났다.

총회와 더불어 실시된 이번 선거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등록기간으로 정하고 24일 선거를 실시해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촉박했다는 것이 최종규 당선자의 전언이다.

오는 4월 제9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장으로 취임하는 최종규 당선자를 만나 노인문제 등에 관해 청취했다.



▶당선 소감은

전교를 그만두고 삶을 마무리 하려고 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지난 1년 동안 시민대중추진위원장을 맡았다.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임기 동안 철두철미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노인지위 향상에 힘써야겠다. 노인을 보는 시각

▶당선자 이동해 現 지회장과 접전 28표차 승리 “노인 스스로 존경받을 말과 행동해야 존경받는다”

이 좋지 않는 경향이 있다.

▶출마 동기는

주위에서 적극 추천했다. 3일간 주위 사람들은 출마해야 한다고 하고 나는 안한다고 했는데 출마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출마여부를 묻는 전화를 하는 사람이 많아 더 이상 모른척 할 수 없었다. 노인회장 선거가 언제인지도 몰랐다. 20일 후보등록을 하고 하루 선거운동을 했다.

노인회는 각 읍면별 분회관리, 노인정 운영관리, 읍과 접촉해 노인정책 반영 및 문화유적지 청소, 마을청소, 제조작업 등 봉사활동을 한다.

▶포천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 집안이나 사회에서 예우를 받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들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공헌한 사람들이다. 일단 열심히 하다보니 자신의 노후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 이것은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인정책을 후하게 수립하여 최저 생활보장을 해 줘야 한다.

▶임기 동안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경로당은 많지만 노인복지회관은 없다.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 서예, 한시, 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했으면 한다. 그리고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관리나 사회체육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다소 젊은 65세에서 70세미만 노인층 일자리를 창출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노인 교통비를 증액해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가 되고 노인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을 노인들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타 지역 사람들은 지역 어른 말을 순응하고 쫓아기는 경향이 있다. 수도권 일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나 외에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정신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최근 명절날에 젊은 사람들이 새배를 다닌다. 앞으로 지역어른을 모실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한다. 노인 스스로 술선수범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집안에서 우러나는 말과 행동을 하면 존경받을 수 있다. 생각한다.

▶노인분들께 한마디 한다면

노인 스스로 존경받고자 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도록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올바른 말과 남들할 수 있는 행동을 해 주었으면 한다. 노인 스스로 존경받는 노인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길 당부한다.

하승원 기자 form66@paran.com

포천을 대표하는 꽃집

늘봄 꽃 직매장

고객만족 5년 연속 1위

고객만족 이벤트

- **이벤트 1.** 20만원 이용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이벤트 1.** 50만원 이용시 3만원 상당 꽃배달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 **이벤트 1.** 100만원 이용시 5만원 상당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주유권 증정)
- **이벤트 1.** 200만원 이용시 15만원 상당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주유권 증정)

www.pochonflower.co.kr